

Q 검색

현대불교

f

[홈](#) >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입력 2021.10.18 11:39 수정 2021.10.18 13:44 댓글 0



상월결사 삼보순례단, 10월 18일 통도사에서 회향식

19일간 423km 행선 완보
불자대중 환호 속에 회향
통도사 금강계단서 재발원
"적극·친절 불교 나아갈 것"
성파 스님 "찬탄·마지않아"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0월18일 불보사찰 통도사에서 회향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이 회향지인 통도사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변화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그 자리 그대로 계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걸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깃발을 중생계와 허공계에 회향합니다."

불교중흥의 서막,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대장정을 회향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 삼보순례단은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순례 회향식을 봉행했다.

최신뉴스

[영상] 천리순례 15일차, 상월결사-조계종 토크콘서트 개최



[영상]상월결사 삼보순례단, 경북서 경논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사노위, 무연고사망자 추모위령제 봉행



부산 팔관회, "호국불교와 코로나19 극복"



선학원미래포럼, 법진 이사장 재선출에 청

인기뉴스

- 1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 2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 3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자"
- 4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이날 순례 회향에는 500여 불자대중이 운집해 순례 회향을 축하했다.

9월 30일 승보종찰 송광사에 모여 10월 1일 입재한 이후 19일만이다. 순례단은 19일 차인 이날 울주 숙영지를 출발해 양산으로 진입, 불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통도사에 도착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선다회 등 사부대중이 통도사 산문부터 길게 줄을 서서 순례단을 환영했다. 통도사 취타대의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순례단에 불자들은 목도리를 공양올렸다.

이날 통도사에는 삼보순례 장정의 끝을 축하하기 위한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들의 참석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회향식에 참석했으며, 윤석열·유승민 국민의힘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강윤형 여사가 함께 자리했다. 또한,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양산 갑), 김일권 양산시장, 이주영 前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前경남도지사 부인 김정순(법명 대비심) 여사가 참석했다.



통도사 숲길에서 일주문을 향해 마지막 행선을 진행한 순례단은 통도사 금강계단으로 향했다. 회주 자승 스님 등 순례단 전원은 맨발로 금강계단을 참배했다. 사리탑 탑돌이를 하며 순례단은 그동안의 순례가 깨달음을 향한 길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평화와 행복을 향한 이타행임을 나타냈다.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순례단은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축원과 함께 이날 순례를 회

5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studio GONG

[현대불교NEWS] 천리순례



[영상] 상월결사-조계종 포교원 토크콘서트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사심사관' 코로나시대 정서

향했다.



회주 자승 스님이 통도사 금강계단을 맨발로 참배하고 있다.



이날 회향식은 19일차 순례 회향과 함께 2부로 전체 행사를 회향하는 회향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두 회향식 사이에는 회주 자승 스님의 결사정신에 대한 영상법문이 상영됐다.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이 맡은 자리에서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중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축원으로 순례 회향의식을 치루고 있는 순례단의 모습.





이어진 2부 전체 회향식에서는 총도감 호산 스님이 순례에 참여한 한명 한명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한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 회주 자승 스님이 주지 현문 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했다.

회향식에서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이 법문했다. 성파 스님은 “산에 올라가면 다리힘을 알 수 있고, 물에 들어가면 길고 짧은 것이 보인다고 했다. 만행결사를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이 너무나 다르다”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결과로 ‘혁범성성(革凡成聖)’이라, 범부를 바꿔 성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성파 스님은 이어 “상월 삼동 목자선(상월선원에서 3개월간 묵언정진으로), 삼사 천리 수행여(불법승 삼보사찰 천리길을 수행해서 예를 올리니), 영산 금일 교류월(영축산의 금일 밝고 밝은 달)은 조파 산하 대지회(산하 대지를 완전히 비춰서 빛나게 할 지라)”라”고 법어를 내렸다.



천리순례 회향식에는 새로운 불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했다.

환영사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423km 천리길을 걸으며 부처님과 같이 길 위에서 먹고 자고 법을 편 여러분은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며 “상월결사는 상구보리의 씨앗, 자비순례는 하화중생, 이번 만행결사는 자리이타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 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힘찬 도약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순례단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대장정 회향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다.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을 통해 순례단은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아쉬움을 뒤로 회향했다.



진오 스님을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하는 순례단의 모습



이날 회향식에는 정재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을 열며, 11월 11일 상월결사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결사 #상월선원 #자승 스님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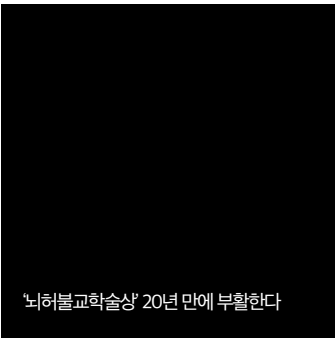
관련기사

신심과 원력으로 재악산 사자평 넘다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기법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2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이시각추천뉴스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항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중흥 기대 교차
신심과 원력으로 재악산 사자평 넘다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대행사상, 인문사회·자연과학으로 논하다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D

AD

by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AD

AD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주식할때 '3가지'기억하면 '큰돈'번다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

>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
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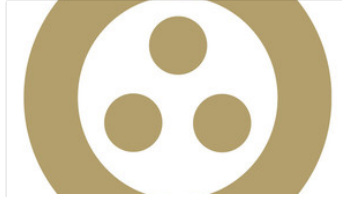
주요기사



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성파 스님, "중정 후보 추대 대중의 뜻에 따라"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현대불교

UPDATED. 2021-10-19 10:10 (화)

☎ 제보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